

# 장흥에 아토피 치료·재활 단지 만든다

전남도·장흥군·고려대 주관 10여개 의료기관 참여

국비 등 60억 투입…올 8월 준공 우드랜드 내 조성

전남도가 장흥군에 대규모 아토피 치료·재활단지 설립을 시작으로 암·심장질환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건강산업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올해 장흥군에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가공음식의 영향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 염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재활단지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뛰어난 지역 자연을 이용하는 '의료 건강산업 복합단지 조

성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아토피 치료·재활단지는 8월께

100ha 흰백나무 숲속에 100만㎡(30만평) 규모로 준공되는 목재 문화체험장인 '우드랜드' 내에 추가 조성된다.

아토피 치료·재활단지는 우드랜드 내 3만7천㎡에 6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천일염 항알레르기실과 소금분사실·해수탕·풍욕실 등 아토피 치료 및 재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남도·장흥군·고려대·(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등이 주관하며, 전남대와 조선대·동신대·전북대 등 10여개 의료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향후 관련 분야의 치료센터와 연구소 등도 만들 예정이다.

청정 해양성 기후지역인 장흥은 우수한 자연 환경 여건으로 아토피 치료·재활단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료 건강산업 복합단지'란 아토피와 천식,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에 대해 치료·재활·휴양·요양·관광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100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도내 지역별로 특

성화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토피 치료·재활단지는 전남도의 의료 건강산업 복합단지 사업의 시발점이며, 여타 질환별 치료단지는 현재 발주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지역을 선정,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토피 치료·재활단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 친환경 자연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의료 산업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의료건강산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고연비車 통행료 할인도 '없던일로'

정부 에너지 절감대책

부처 이견 시행 않기로

정부가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발표한 냉난방 운도제한을 위반해도 가정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도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4일 "부처 협의결과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지경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이견을 드러냈으며 결국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출향 항우 1천300명과 광주·전남지역 1천여 기업에 '고향 농어촌에 PC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협조서한을 보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 등이 활성화돼 고향 마을의 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은 전남도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초고속인터넷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PC 767대와 중고 PC 1만1천800대를 모아 도내 농어촌에 보냈으며, 현 PC를 배정한 마을은 새 PC가 들어오는 대로 바꿔주고 있다.

박 지사는 협조서한을 통해 "전남도가 1마을 1PC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마을마다

PC가 공급돼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마을 별로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고 마을 PC가 설치되면 사이버 장터 개설로 대도시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농수산물